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결혼정보회사 아르바이트생 고용의혹 기사,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성립

A 인터넷신문사는 결혼정보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맞선파트너로 소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 회사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식 회원이고 사내 DB상의 회원 개인정보와 미팅일자·장소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A 언론사는 취재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의혹제기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음성권 침해 사례 |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보도하여 음성권을 침해한 사건, 기사삭제로 조정성립

B 방송사는 대학들이 비싼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모 대학 재무회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보도화면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교내 구성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학교와 관련부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음성을 변조하였다고는 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도한 것은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을 설득, 보도영상 및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석준 _ 인터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가 매우 흥미로웠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인터뷰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인터뷰 내용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회장은 공약에 내세운 것처럼 현재 고장난 사법시험제도를 뜯고치겠다는 포부와 열정이 대단하고 또 단지 돈이 없어서 법의 도움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서 이해해 주시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언론인 겸 법조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발만 동동구르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국가와 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그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부분까지 속 시원하게 긁어주고 또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멋진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화이팅!!!

장보경 _ 언론사람 3월호를 읽고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나의 언론분쟁 경험기>에 나왔던 사례를 보면서 한 개인이 거대 언론사와 대립을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약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사와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갈등이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홍보지에 실린 여러 분야 사람들의 글 덕분에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정렬 _ 우연히 공공도서관에서 눈길에 닿은 [언론  사람]을 읽고 비록 분량은 다른 책자에 비해 적지만 내용이 알차고 읽을거리가 상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제4부’로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이 크며 인권과 자유의 신장, 국민권익의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국민민복을 최대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방송이나 신문사는 보도성향이 권력중속적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며, 그 피해와 불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어떤 기능과 활동을 하는지 상세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이런 대외홍보지도 보다 많이 발행하고 배포하여 일반 국민들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하리라 봅니다.